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가장 중요한 징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요. 둘째는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육체는 부패된 것이고 거룩하지 않지만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방탕하고 타락했죠.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편한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혹하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다가 경계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첫째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유다는 누구나 하면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형제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육체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언제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했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방인에게 대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들도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하죠. 베드로도 아~ 나도 원래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고넬로 사건을 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구원을 주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제 그 발언을 하는데 이 야고보가 여기 있는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명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목매여 죽인 거 우상에 음행을 피하고 외에는 우리가 금하지 말자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고 절기를 안 지켜도 괜찮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결의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요.

유다는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불렀다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약적인 그 의미가 좀 많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대대로 신령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가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뜻도 되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본문 2절)**공홀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한 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건 한 번에 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 단번에 받은 구원의 도입니다. 그런데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왜 싸워야 돼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악한 사탄이 있어서 자꾸만 시험 들고 믿는 자까지라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지키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악한 마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기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구원 못 받도록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지만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이게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옛적에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방탕한 것이 뭐예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는 안 가. 은혜 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죄도 안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방탕으로 받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

에서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나와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사람 전부 다 가짜입니다. 또 어떻게 나셔야 돼요?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부활하신 증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본문 5절)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만 구원이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불신앙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남 허물 찾고 남 비판하고 그 사람은 정말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항상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해 가는 사람이 돼야지, 꼭 남 허물만 찾아가지고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뭐든지 불신앙적으로...그래서 제가 자꾸만 불신앙 하지 말라. 그거 왜 그러냐? 그럼 자꾸만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요.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만 보여요. 그럼 늘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게 마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성연애 하고 차별 금지하고 이런거 같은 행동으로 음란한 다른 육체를 다른 육체가 뭐예요? 동성연애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구약 시대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중에 막 꿈꾸고 하나님 뜻이 이렇다 이런 그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가면 가장 확실한 건강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꿈꾸는 자들.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천사도 비방하고 목사도 비방하고 나중에는 성도도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를 할 때에 한 편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입니다. 양쪽 편을 듣고 해야 돼요. 남 비파 비방하고 한 편 듣고 누가 그렇단다. 누가 그렇단다. 이거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고 기도 응답 나누시고 서로 사랑하고 선한 걸 나누는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그렇단다. 그렇단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거 맞는 거 아니잖아

그럼 비방하는 건 옳은 거 아닙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이제 소위 위경에 있는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천주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붙였는데 이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 있는 걸 위경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나가 있는 걸 가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경만 성경을 인정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학자들이 위경에 있는 내용인데 모세가 죽었어. 죽었는데 마귀가 와서 시체를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사 모세의 시체를 뺏는 거예요. 왜 뺏냐고 마귀가 왜 모세를 내가 데리고 가겠단니까 왜?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례하려 했다. 내가 가져 갈란다 이래서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마귀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널 꾸짖기를 원하라 이 말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니가 비방하느냐 그거 옳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거 비방해요 출애굽할 때도, 또 영지주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 잘 가르치는 사도들을 비방하고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나요. 라고 하듯이 알지 못하는 거지...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자기가 비방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멸망, 우리는 하나님 아는 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예수 전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며 부르신 자며 끝까지 우리는 지키는 축복된 자입니다. 축복된 자가 죄 짓고 남 비방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